

제주자치경찰단, 최근 3년 생활·교통 정책 도민 인식 조사 결과

## 정책 관철은데 체감은 ‘글쎄’

자치경찰위, 도민·관광객 안전 체감도 향상 홍보 주문

제주자치경찰이 지난해 시행한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인지도가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정책 추진에 대한 충분한 체감도 조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보 강화는 물론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주 실현 등 향후 과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자치경찰 활동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20일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종합평가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주민자치경찰대(24년 153명→25년 275명)와 학교안전경찰관(6개교)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첨단기술을 치안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등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정책 추진을 통해 교통 혼

를 개선,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현장 대응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했다.

이러한 결과로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 ‘대상’을 비롯해 제주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우수부서 선정 등 정책의 우수성·혁신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정책 만족도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를 보여 향후 정책 홍보 강화와 생활안전 분야 중심의 체감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은 잘하고 있지만 이를 알리고 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치경찰단이 최근 3년간 조사한 도민 인식 및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안전분야 인지도는 2023년 53.76, 2024년

50.42, 2025년 54.42로 절반을 조금 넘어선 수준에 그쳤다. 반면 만족도는 2023년 61.27, 2024년 61.43, 2025년 64.76으로 다소 나은 결과를 보였다. 교통안전분야도 인지도보다는 만족도가 매년 높은 결과를 냈다.

종합적으로 지난해 자치경찰단의 전체적인 정책 만족도는 65.63이며 인지도는 58.30 수준이다. 만족도에 견줘 인지도가 낮아 정책 수혜자가 자치경찰 추진 정책에 만족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시니어클럽 및 러닝크루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치안 정책 고도화에 나선다. 또 올해 홍보예산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정기 소식지 발간, 정책·현장 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겨울가뭄에 바닥 드러난 저수지 겨울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20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저수지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도 자전거교실 석연치 않은 ‘수석 강사’

도, 2023년 ‘수석 부강사’ 도입해 수당 차등 지급 뒤늦게 알려져 반발 일자 지난해부터 ‘수석’ 없애 공무원 배우자 관련 의혹 제기에도 “사실무근”

제주도 ‘그린자전거 교실’의 강사 수당 차등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수석 부강사’를 따로 정한 배경에 당사자인 A씨가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B씨의 배우자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작년에 이를 둘러싼 잡음이 일자 A씨는 그해 상반기 활동을 중단했고 제주도에서는 그 후로 수석 강사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2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그린자전거 교실은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 등을 취지로 2014년부터 운영됐다. 제주도는 교육생을 모집해 외부 강사의 지도 아래 도로 주행 방법 등 실기·이론 교육을 진행

해 왔다. 올해는 보조 강사 수당(3명)을 포함 총 3600만원을 투입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그린자전거 교실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그간 수석 강사에게 기존 강사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했고 2025년에는 금액 차이가 더 벌어졌다. 수석 강사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면서 “A씨보다 경력이 많은 강사가 있다.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다. 특히 “A씨가 작년에 수석 강사를 그만둔 직후 도청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을 추천했더니 얼마 뒤 수석 강사를 없애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자리였던

거냐”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최근 공직자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에서는 “확인 결과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소통청렴담당관 측은 “배우자 B씨가 그린자전거 교실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이력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자전거 교육 강사 경력은 타 강사보다 2년 정도 많고 수강생 모집 문의 사항 안내 역할 등을 맡았다”며 “강사 수당 지급은 자전거교실 운영 계획의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사로 참여했던 C씨는 “제주도에서 이력서를 제대로 살펴봤는지 의문이다. 자원봉사를 한다는 생각에 오랜 기간 동안 보람과 자부심으로 활동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 학교 성폭력 심의 도교육청이 맡는다

9월부터 일선학교→교육청 이관… 전담팀 구성

그동안 도내 일선 학교에서 맡아오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업무가 오는 9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해당 업무를 도교육청이 직접 처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청 관계자 4명, 교원 4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업무 이관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고 타 시·도교육청의 업무 이관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역할 분담 체계 정비, 관련 지침 개정, 사안 처리 안내서와 지침서 제작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 이관이 이뤄질 경우, 사실 확인과 심의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

되고 학교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및 재발 방지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앞서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가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학교 조직 전반에 부담이 가중됐고, 특히 교원 간 관계 부담 등으로 인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과 예방·회복 중심의 역할에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안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양돈장서 일하던 60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져

양돈장 분뇨처리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12시42분쯤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장에서 A씨가 분뇨처리 정화조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구조대는 정화조 약

10m 아래로 추락한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 평화로서 화물차 전도… 70대 운전자 숨져

평화로에서 화물차량이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전도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졌고,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분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2.5t

화물차량이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도돼 7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레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 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 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